엔터테인먼트 전문
임상혁 변호사

"연예계 사건은 일관된 대응 중요"

연예인, 영화, 게임 사건 맹활약
영화 좋아해 영화법 전문 지향

송윤아, 백윤식, 정석원, 한성주, 최진실, 동방신기, 이미숙… 인기 연예인들의 이름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으로 유명한 임상혁 변호사의 의뢰인들이다.

얼마 전 배우 백윤식씨와 백씨의 두 아들을 대리해 백씨의 전 여자친구인 방송사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화해로 종결시킨 임상혁 변호사가 이번엔 송윤아씨의 대리인이 되어 악성 블로그와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윤아씨 대리해 고소

임 변호사는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해 제공한 보도자료에서 "결혼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에 찬 욕설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용인 수준을 한참 벗어난 행위로서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물론 임 변호사가 늘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휴대폰을 아예 꺼놓고 무대응 전략을 고수해 연예부 기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고,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 이름으로 배포할 때도 있다. 임 변호사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송윤아씨 사건은 그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

"연예계 사건은 폭발적인 언론 보도 등 일반 사건과 다른 면이 많지요. 하지만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길게 내다보고 일관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분야에서만 10년이 넘는 경력이 쌓인 임 변호사는 또 "판결 등 사법부의 분명한 판단을 가급적 받아 놓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일반 사건과 다른 연예계 사건 판결 등 분명한 판단 받아 놓아야"

임상혁 변호사는 누구…

- 서강대 영문과, 법학과(복수전공)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변리사
- 미 남가주대(USC) 로스쿨 법학석사(LLM)
- Dreier Stein & Kahan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박사과정(지적재산권법) 수료

하인스 워드 방한때도 활약

연예인, 영화, 게임, 스포츠 등 이른바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또는 법률자문 수요가 급증하며 임 변호사 사무실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중 한 사람으로 외국에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2006년 4월 미식축구선수 하인스 워드(Hines Ward)가 한국인 어머니와 함께 방한할 때도 임 변호사가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했으며, 토리노 올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스키선수 토비 도슨(Toby Dawson)의 첫 방한과 친아버지 상봉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는 최근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제작 및 배급사를 대리해 청솔학원의 가처분 신청을 막아냈다. 청솔학원이 영화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업소처럼 표현되어 학원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하며 영화 제작 · 배급사를 상대로 상영금지를 요청한 사건으로, 임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변론전략을 짰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게임 등이 출시될 때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직접 게임을 해 보며 자문에 응한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가 영화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강 영화 공동체' 회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설가가 되기 위해 서강대 영문과에 지원했

다는 그는 영화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영화 감독을 꿈꿨다고 회상했다. '서강 영화 공동체'는 박찬욱, 최동훈 등 세계적인 감독을 배출한 유명한 영화동아리로, 임 변호사는 이후 영화 전문 변호사가 되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동문들을 만나고 있다.

대학시절 영화동아리 활동

2003년 지적재산권(IP) 분야가 발달한 로펌에서 변호사업무를 시작한 그는 영화에 대한 관심을 살려 2004년 "영화와 저작권" 단행본을 펴냈다. 이어 이듬해엔 "영화와 표현의 자유"를 출간했다. 또 변호사가 된 지 4년만인 2007년 미국의 남가주(USC)대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 일찌감치 엔터테인먼트 전문을 지향했다.

> "CJ 대리해 메디오피아 인수 자문
> 텐센트 5억달러 투자유치도 대리"

유학을 떠나기 전인 2007년, 임 변호사는 CJ그룹이 연예기획 및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체인 메디오피아를 인수해 엠넷미디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CJ 측을 맡아 활약했다. 영화와 법에 관한 두 권의 책을 내는 등 임 변호사의 실력을 알아본 CJ가 그에게 자문을 맡긴 것. 대개 이런 거래는 대형 로펌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력 4년의 임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 등 M&A 거래를 주도해 이 점에서도 화제가 됐던 사건이다.

이후 CJ는 임 변호사의 단골 클라이언트 중 한 곳이 되었다. 얼마 전 CJ게임즈가 중국의 1위 인터넷기업인 텐센트(Tencent)로부터 5억 달러, 약 5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거래에서도 임 변호사 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이 CJ 측을 맡아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미디어콘텐츠팀 발족

USC에서 LLM을 마치고 LA에 있는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부티크에서 경험을 쌓은 그에게 세종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해왔다. 특히 임 변호사가 탐난 세종에선 임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서 부담한 해외연수 비용을 그 로펌에 지급하고 임 변호사를 데려왔다는 후문이다.

세종에 합류한 임 변호사는 2009년 초 로펌 중 최초로 미디어콘텐츠팀을 발족, 관련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임상혁 변호사는 개성 있는 머리스타일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끼가 물씬 느껴지는 그는 실제로 법에 관한 전문성은 물론 여론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감이 뛰어난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후배들에게도 이런 점을 많이 강조해요. 항상 안테나를 열어 놓고, 언론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 하라고 주문하죠."

한국인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등에서 활동하는 임 변호사는 3년 전 서울대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법 연구로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는 그동안의 연구와 사건 수행 경험을 살려 엔터테인먼트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를 쓰는 게 조그마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LT

이은재 기자